

모닥불이 전해주는 지도자의 자세

전국재 소장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1961년 여름 YMCA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 캠프에 참가한 이래 지금까지 꼭 5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캠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닥불일 것이다. 모닥불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소중한지 어느 샌가 모닥불 속으로 푹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모닥불은 황홀한 놀이의 절정이었다. 모닥불은 필자에게 청소년은 누구이며,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모닥불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라!

모닥불을 피우려면 우선 마른 잔가지들로 불씨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통나무와 지푸라기들을 산더미 같이 쌓고 거기에 석유를 부어서 쉽게 불을 내고 있다. 나무더미에 석유를 부어놓고 불을 붙이게 되면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는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는 불기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불이 무섭고 뜨거워서 뒷걸음질 친다. 개중에는 함성을 외치고 박수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쉽게 타오르는 불 속의 나무더미들은 사그라져서 이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 다가가지 못하는 불은 결코 모닥불이 아니다. 진짜 모닥불을 만나려면 우선 주위를 정돈하여 불 자리를 만든 다음 마른 가지를 충분히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불을 만든 다음 조금씩 큰 불로 키운다. 처음부터 큰 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큰 불은 작은 불로부터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것이다.

마른 잔가지로 밑불을 만들 때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성경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작은 불꽃이 점차 큰 불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은 희생이 큰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잔가지에 불을 붙여 모닥불을 피울 때마다 필자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큰일을 한다고 하여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모닥불의 바싹 마른 작은 가지가 청소년들을 온 몸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동반자가 되라!

마른 잔가지에 불



을 땀겨서 밀불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좀 더 굵은 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면 보다 든든한 밀불이 만들어진다. 주의할 것은 잔가지로 밀불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당장 굵은 나무를 올려놓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불은 죽어버리고 만다. 잔가지로 밀불을 조금씩 키워서 불의 힘을 더욱 든든히 만든 후 그 위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굵은 나뭇가지들을 엮기설기 띄워서 올려놓으면 불이 더욱 싱싱하게 만들어진다. 불의 세기를 보고 거기에 알맞은 크기의 통나무를 올려놓으면 그제야 멋진 모닥불이 만들어지게 된다. 통나무를 여러 개 웅기중기 모아놓아야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타오른다. 이런 모습에서 필자는 성급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동반자가 되라는 모닥불이 조용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다.

청소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태워 그들을 섬기고 촉진하라!

잘 타오르던

불도 때로는 힘을 점차 잃고 중국에는 꺼져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불이 죽어버리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밀불과 그 위에 올려놓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 밀불이 점차 약해지면서 불이 위로 옮겨 붙지 못해서 꺼져버리는 경우이다. 둘째는 나뭇가지를 너무 촘촘히 올려놓아 공기가 통하지 못해서 밀불이 꺼져 버리는 경우이다. 불 지피는 데 미숙한 초보자들은 불이 시들해지면 조금해져서 불 위에 잔가지를 잔뜩 올려놓는다. 그렇게 되면 위에 놓아둔 나뭇가지들만 후루룩 타버리고, 불기운이 막혀서 모닥불이 죽어버린다. 마른 잔가지를 모닥불 밑으로 계속 넣어주어서 밀불을 튼실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밀불이 든든해야 활활 타오르는 건강한 모닥불을 만들 수 있다. 지도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태워 그들을 섬기고 촉진하는 도움자이다. 죽어가는 모닥불에 정말 약간의 밀불을 넣어주기만 해도 이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하다. 필자는 힘들고 외로워하는 청소년들에게 베풀 작은 관심과 도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밀불과 그 위에 놓인 가지들 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반대로 촘촘히 붙어있으면 모닥불은 죽어버린다. 지도자들도 청소년들과 너무 밀착해 있어도 안되고 반대로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된다. 그들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도움자와 격려자가 되라!

탁탁 소리를 내고 불똥을 튀면서 힘차게 타오르는 모닥불에도 종종 문제들이 발생한다. 모닥불 위에 놓여 잘 타던 통나무가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져 나오면 이내 꺼져 버린다. 그렇게 타다 말고 꺼져버린 나무는 불성사납다. 모닥불에서 굴러 나온 장작을 누군가 집어서 모닥불에 다시 옮겨놓아 주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이든 “재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골치 아픈 청소년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조차 그런 청소년을 은연중에 귀찮아하기 쉽다. 이 세상에 문제야는 없다. 그들에게는 곁에서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사

람이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가 도움자이고 격려자(encourager)이다. 모닥불 곁에서 필자는 ‘구조 요청을 하는 이들의 형편을 바로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민감성과 애정을 갖추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왕성한 에너지를 가져라!

힘차게 타오르는 모닥불에 마르지 않은 통나무를 한두 개 올려놓게 되면 금방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는 결국 모닥불이 힘을 잃고 꺼져버리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밑불이 튼실하지 않으면 젖은 나무가 뿜는 수증기로 인해 점차 불기운이 약해져서 모닥불이 꺼져버리게 된다. 하지만 모닥불 화력이 세면 웬만한 젖은 나무들은 통째로 삼켜버린다. 성숙한 크리스천 공동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수종에 따라 타오르는 모닥불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소나무나 낙엽송은 불을 붙이기 쉽고 불뚱을 튀기면서 타는데 화력이 강하고 송진 타는 냄새가 너무 좋다. 미송도 불 붙이기는 쉽지만 화력이 약하고 금세 타버려서 좋은 밑불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 같은 참나무류는 화력이 아주 강하고 좋은 숯을 만들어서 모닥불 장작으로는 최고다. 이밖에도 불뚱이 유난히 튀는 나무, 노송나무처럼 연기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오래 타는 나무, 썩은 나무, 마른 나무, 젖은 나무, 무르거나 단단한 나무, 가는 가지, 굵은 통나무가 있다. 이처럼 나무마다 타는 성질이나 모습이 모두 다를 뿐 불필요한 나무는 없어 보인다. 성질과 모양이 모두 다른 나무들이 하나의 모닥불이 되어 함께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양과 성질이 다른 장작들이 하나의 불이 되어 타오르듯이 청소년들은 모두 다른 성격과 형편이 다른 독특한 인격체이다. 지도자는 그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들과 하나가 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되라!

시원스럽게 타고 있는 불도 불쏘시개로 마구 쑤시거나 타는 나무를 흩어놓으면 모닥불은 꺼져버리고 만다. 땀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공급해 주어서 불이 잘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청소년들을 다루는 지도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지도자는 청소년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성숙한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해 준다. 지도자는 불의 성질을 잘 알고 조심

스럽게 모닥불을 일구는 사람처럼 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되는 전문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라!

나무에 불을 붙이고 불을 유지하려면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과 같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모닥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된다. 산소가 차단되면 모닥불은 금방 죽어버리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닥불을 보며 깨닫게 된다. 청소년 지도자는 말씀과 성령의 교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 받아야 한다.

빛과 따스함을 나눠줘라!

모닥불은 빛과 따스한 온기로 사람들을 모아주어서 서로 사귀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필자가 한여름 밤의 모닥불보다 추운 겨울밤의 모닥불을 더 즐기는 것이나 큰 불보다는 자그마한 모닥불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큰 불은 무섭고 위험해서 다가갈 수가 없다. 하지만 작은 불은 우리에게 자리를 내 주고 친구들을 모아준다. 모닥불에 비친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모닥불의 따스한 온기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 필자는 청소년들에게 빛과 따스함을 나누어 주는 모닥불을 닮은 그런 맏형(big brother)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다짐한다. 어두움을 밝혀주고 따스함을 나눠주는 모닥불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밤새 모닥불과 함께 있다 보면 모아둔 장작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군불마저 점차 힘을 잃어 종국에는 차가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다. 사실 필자는 그 순간의 모닥불을 가장 좋아하고 애뜻함을 느낀다.

필자는 30여 년 전 대학생 시절에 대천 해수욕장 해변에서 모닥불과 처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다. 깊어지는 밤 시끌벅적하던 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을 쓸어 감는 파도소리만 들릴 뿐 온 세상은 고요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하나 둘 자리를 뜨고 모닥불 곁에 필자 혼자만 남게 되었다. 새까만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금세 쏟아질 것처럼 반짝이던 별들이 밝아오는 여명에 투명해지는 진보랏빛 새벽하늘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그 아래 모닥불은 힘을 잃어 잿더미 안에서 마지막 빛을 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모닥불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본 동시에 동트는 새벽하늘에서 부활하는 새 생명을 보았다. 밝아오는 새벽하늘 아래 꺼져가는 모닥불 곁에서 나는 죽음과 함께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을 보았다.

지도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 후로 필자는 모닥불 곁에 있으면 그때 그 하늘이

그리워 지금도 새벽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하나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도 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이들을 일깨워 주신 참 좋은 분이셨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다가가 그를 구원하셨다(눅 19:1~10). 예수님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 끌려와 분노하는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구하였을 때도 그리하였다(요 8:1~11).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분노한 무리들을 모두 돌려보낸 다음 단 둘이 만나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설교하기를 즐겼던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도리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무리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였던 분이셨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즐기셨다. 예수님은 은밀히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으며(요 3:1~21),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다가가셨다(요 4:1~42).

예수님의 이처럼 자상하고 친근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몰려든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무리들이 어찌나 밀려드는지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의 배에 올라타고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띄우라고 부탁하셨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무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평온이 찾아든 그때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를 끌어다가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눅 5:1~11).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 일일이 만나셨을 것이다.

필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모닥불 곁에서 만나셨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날 새벽 낙심하여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전의 생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디베라 바닷가, 곧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무얼 좀 잡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 순간 한 제자(아마도 그는 요한일 것이다)가 “주님이시다” 말했고 베드로는 걸옷을 걸친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다.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호숫가에 대고 가보니 예수님께서 모닥불

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주셨다.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자, 베드로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크게 걱정이 되어 “주님, 주님은 제 진심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요 21:1~22).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승천하시기 전에 가진 마지막 만남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은 긴 밤에서 막 깨어나 동녘 하늘이 밝아오는 이른 새벽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알리는 새 하늘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충성된 제자로 만드셨다. 예수님의 그런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 편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적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 인내하는 동반자, 섬기는 자, 도움과 격려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후견인이 되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상이 모닥불을 통해 필자가 듣고 느낀 이야기이다. 모닥불을 보며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고, 청소년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닥불 같은 지도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